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우리민속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한마당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버 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5분)

주 차 경복궁 주차장 이용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110-820)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 화 02-3704-3114 **홈페이지** www.nfm.go.kr



이용안내

개관 및 관람 시간

03~05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06~08월	09:00~18:30	17:30까지 입장
09~10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11~02월	09:00~17:00	16:00까지 입장
05~08월 주말·공휴일	09:00~19:00	18:00까지 입장
야간개장 매달 마지막 수요일	09:00~21:00	20:00까지 입장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공연접수 공고는 4~5월과 9~10월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10

OCTOBER 2015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October

2015년 10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일요일민속무대 Sunday Performances in October

2015년 10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우리민속 한마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10월 토요일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October, Every Saturday 3:00pm, Museum Auditorium
2015년 10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제915회

민성희의 춤 '단풍향 운율에 춤추다.'

Minseonghui's Dance Performance "Dance to the rhythm of maple"

10. 03.



제916회

이계영 '춤으로 말하다'

Dance Performance by Lee Gye Young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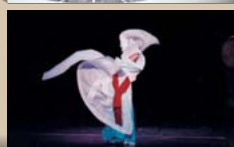


제917회

송규정의 정가 정가의 향기 흐르는 가을 정감

Song Gyu Jeong's Jeong ga "A Feast of Jeong-ga in fresh verdure"

10. 17.



제918회

김정녀의 '전통춤'

Kim Jeong Nyeo's- Traditional dance performance

10. 24.



제919회

가야금병창으로 가을을 수놓다

Sound of Autumn playing by Gayageum

10. 31.

10월 일요일열린민속무대

Sunday Performances in October, Every Sunday 2:00pm, Museum Courtyard
2015년 10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제380회

평양예술단과 함께 하는 '우리 아리랑'

Playing with Pyeongyang Art Troupe "Arirang"

10. 04.



제381회

심장의 울림을 들어라!

Listen to your heart beat!

10. 11.



제382회

화광 아리랑 연희 2015 '태극취타대! 평화의 빛과 영원히 빛나리다.'

'Jeongryeuijanghaengryeol' by Taegyeuk Chwitadae

10. 18.



제383회

다함께 놀자 신명나는 한판 '유희노리'

Let's play together! Exhilarating Stage by 'Yuhinori'

10. 25.

우리민속 10 OCTOBER 2015

한마당



민성희의 춤 '단풍향 운율에 춤추다.'

Min Seong Hui's Dance Performance 'Dance to the rhythm of maple'

2015. 10. 03.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민성희가 스승인 故 벽사 정재만과 원향 엄옥자의 춤과 정신을 단풍향 운율에 담아 내는 춤 이야기이다. 경기와 영남의 춤 가운데 백미라 할 수 있는 작품들과 전통춤의 발골로 새롭게 선보이는 통영입춤과 전통에 현대적 감각을 덧붙인 창작곡 '쑥대머리'의 소리 한 자락을 특별공연으로 구성하였다.

첫 무대는 벽사류의 사군자 난(蘭)으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큰태평무로 시작한다. 이어서 이춤 무궁을 기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통영검무, 벽사류의 사군자 국(菊) 살풀이, 승전무를 추기 전 통영의 예기조합 기녀들이 추었던 맨손춤인 통영입춤, 가을향에 소리 한 자락을 그려내는 창작곡 '쑥대머리'를 공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군자 죽(竹)의 강하고 유연함을 나타내는 승무는 군자의 품격과 절개를 춤으로 풀어냄으로써 벽사류의 정제된 미를 기품 있게 그려내는 공연을 선사할 것이다.

Min Seonghui presents a dance performance of her two masters, the late Jeong Jaeman and Eom Okja, telling audience the story of dance to the rhythm of maple.

'Tongyoung Ipchum', representative dance pieces from Gyeonggi and Yeongnam region and fusion music will be presented in sequence.

The first is 'Big Taepyeongmu' with orchid, one of four symbols for traditional noble virtues, which means wish for reign of peace. The following is praying for General Yi, 'tongyong geommu' is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no.21. Salpuri of chrysanthemum, 'Tongyong Ipchum', which an official dancing girl performed before the Seungjeonmu, 'Ssukdaemeori', the creative song of the rhythm of autumn come after.

The final stage is bamboo, last symbol for traditional noble virtues, shows the strong and soft motion of seungmu, describing the rigid beauty and the drawing elegance movement of traditional dance.

공연순서 PROGRAM

- 01 큰태평무 Big Taepyeongmu
- 02 통영검무 Tongyeong geommu
- 03 살풀이 Salpuri
- 04 창작곡 '쑥대머리' Creative song 'Ssukdaemeori'
- 05 통영입춤 Tongyeong Ipchum
- 06 승무 Seongmu



대표 민성희(서울종합예술학교 무용예술학부 겸임교수)
해설 이미희(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출연 민성희, 변지연, 이하나, 김현애, 김민정, 박성호

이계영 '춤으로 말하다'

Lee Gye Young - Dance Performance

2015. 10. 10.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한국 무용의 전통과 민속, 그리고 창작을 한자리에서 감상 할 수 있는 무대로 그동안 쌓아 왔던 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고 담백하게 풀어가는 춤판이다. 한국 전통춤의 대표로 꼽히는 승무, 살풀이, 태평무를 기반으로 흥으로 판을 돋우는 진도북춤과 흥풀이, 시골 풍경을 담은 서정적 창작 작품 봉숭아와, 걸인들의 해학과 풍자가 담겨 있는 각설이를 통해 격이 있으면서도 소박하고 단아하면서도 거침없는 신명으로 다양각색으로 펼쳐지는 우리 춤의 멋과 한을 선사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특히 올해 작고 하신 조갑녀 선생님의 맥을 잇는 승무와 민살풀이는 엄격한 규칙 속에서 자유로운 절제미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멋으로 정중하고 무거운 춤의 깊이를 더하여 이 가을 춤에 대한 열정과 사랑의 마음을 관객들에게 전할 것이다.

This performance comprises of traditional performance, folk culture and creative dance on stage. The performer will have a chance to show the audience their story of dance.

It will begin the stage with Seungmu, Salpuri and Tapyeongmu that are the representatives of traditional dance. Also, Heungpuri, Jindobukchum will be followed, 'Bongsunga' reminisce of countryside and 'Gakseori' telling a story of beggars with humor and lampoon. Each of the stage delivers the beauty and sorrow of Korean people with dance performance.

Especially Seungmu and Minsalpuri, dance pieces inherited Jo Gapnyeo style, though seems to have rigid rules of style or movement, impromptu dance encompassing free spirit yet moderate characteristics. Through a dancer's heavier hand movements and dignified steps, the audience may appreciate the sentiment of keep sorrow of Korean peoples and passion.

공연순서 PROGRAM

- 01 조갑녀류 승무 Jogapnyeo Ryu 'Seungmu'
- 02 봉숭아 Bongsunga
- 03 한영숙류 태평무 (歌樂) Hanyongsuk Ryu 'Taepyeongmu'
- 04 박병천류 진도북춤 Park byeongchoen Ryu 'Jindobukchum'
- 05 흥풀이 Heungpuri
- 06 조갑녀류 민살풀이 Jogapnyeo Ryu 'Minsalpuri'
- 07 각설이 Gaksuri



대표 이계영 (한국 국제 예술원 전통예술학부 무용과 교수)
출연 최정옥,곽시내, 김정민, 현려진, 김현지, 김진아
사회 이주아

송규정의 정가 정가의 향기 흐르는 가을 정감

Song Gyu Jeong's Jeong-ga 'A Feast of Jeong-ga in fresh verdure'

2015. 10. 17.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송규정의 정가(正歌)를 선보일 것이다. 정가는 바른 음악이란 뜻으로 전통성악인 가곡, 가사, 시조로 구성된 공연이다. 정가는 옛 선비들이 심신수양으로 즐기던 풍류음악이다. 느림과 절제의 아름다움으로 정서의 순화와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고 단전호흡으로 건강에 유익한 음악이다.

각박하고 여유롭지 못한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힐링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곡은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 종목으로 시조의 시를 노래로 부르는데 음악이 넓고 선율이 아름답다. 반주는 거문고와 가야금, 대금과 피리, 해금과 단소, 장고로 편성된다. 가사는 12가사가 전승되는데 장시를 노래로 부르며 반주는 피리, 대금, 해금, 장고로 편성된다. 시조는 정가 중에서 보편적이고 대중적이며 음악이 넓지 않지만 다이내믹한 특징이 있다.

'Jeong-ga' means 'righteous music' and refers to a set of three Korean old traditional songs as to 'Gagok', 'Gasa' and 'Sijo'. It is a type of music mostly enjoyed by Seonbi (Korean scholars) relieve nervousness of the mind and the body. Beauty of slow tempo and modest tune purifies and stabilizes emotions, resulting in practices of stomach breathing that benefits the actual health condition.

'Gagok', registered as the world intangible heritage, is a wide-range-tuned song of which the lyrics comes directly from 'Sijo'. Background music is played by Daegeum, Flute, Geomungo, Gayaguem, Haegeum, Janggo. 'Gasa' is a long essay composed of Yulmun(rhythmical poetic phrases) and it has been handed down to us a tradition in the form of twelve separate songs. 'Sijo' is one of the formats in which Korean traditional poems are formulated and is special in which the lyrics are cited in accordance with rhythms.

공연순서 PROGRAM

- | | |
|-------------------------------------|--|
| 01 평시조 국화야 너는 어이 Pyeingsijo | 07 남창가곡 우조 언락(벽사창이) Namchang Gagok(classical song by men) Ujo |
| 02 여창지름 기러기 산이로 잡아 Yeongchangjireum | 08 여창가곡 우조 우락(바람은) Yeochang Gagok(classical song by women) Ujo |
| 03 우조시조 월정명 월정명커늘 Ujosijo | 09 남창가곡반우반계 편락(니무도 비하) Namchang Gagok Banubangye |
| 04 가사 상사별곡 Gasa | 10 여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모란은) Yeochang Gagok Gyemyeonjo |
| 05 가사 춘면곡 Gasa | 11 남여창가곡 계면조 태평가 Namchang Gagok Gyemyeonjo |
| 06 합주 만파정식지곡 Hapju | |



대표 송규정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이수자)

출연 가악풍류회

가창 송규정 박소현 박기순 나혜란 가야금 송규정 김경혜

거문고 박한용 대금 허병상 이상원 윤석조 피리 이재권 단소 강광희 김태식

해금 우길자 유진희 박윤희 장고 신사영 낭송 권정숙

특별출연 이오규(가창,장고) 어경준(대금) 객근열(피리)

김정녀의 '전통춤'

Kim Jeong Nyeo's Traditional Dance Performance

2015. 10. 24.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중요무형문화재 살풀이춤 전수교육조교인 김정녀의 전통춤을 선보인다. 첫 무대는 허리에 장고를 동여매고 오른손의 채와 왼손의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즉흥적인 멋과 민속춤의 흥취가 돋보이는 장고춤을 선보인다. 이어서 전통춤의 백미이며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속춤으로 이매방류 살풀이춤, 진주권번에서 추었던 춤으로 입춤의 하나인 경남무형문화재 제21호 진주교방굿거리춤, 선비의 멋스런 풍류와 어엿함이 주조를 이루는 춤으로 사풍정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민속춤의 정수라 할 만큼 품위와 격조가 높은 춤인 승무로 김정녀의 춤인생을 돌아 볼 수 있는 공연을 선사한다.

This stage shows a Kimjeongnyeo's traditional dance performance, who is the record holder and successor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of Salpurichum. It begins with 'Janguchum', wearing drum around the hip of the musician and using both hand to playing with drum.

The following will be Yi Maebang type of 'Salpurichum' that one of the representative folk dance performance. Meanwhile, Jinju Gyobanggutgeorichum, type of ipchum and Gyeongnam Intangible Cultural Asset No.21, 'Sapungjeonggam' show the gentleness of Seonbi.

The final stage is Seungmu, a perfect art form that sums up all techniques of Korean folk dances and reflection of Kim's dance experience and life.



공연순서 PROGRAM

- 01 장고춤 Janggochum
- 02 살풀이춤 Salpurichum
- 03 진주교방굿거리춤 Jinju GyobangGutGeorichum
- 04 사풍정감 Sapungjeonggam
- 05 승무 Seungmu



대표 김정녀(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전수조교)

출연 김정녀, 서보경, 정유경,
남선희, 차봄, 김은영,
김민중, 류일훈, 이정일

가야금병창으로 가을을 수놓다.

Sound of Autumn playing by Gayageum

2015. 10. 31.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판소리의 '흥'과 가야금의 '농현'이 어우러져 전통음악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가야금병창 공연을 선보인다.

가야금병창을 대표하는 명곡들로 수궁가와 흥보가, 심청가 등이 10월 마지막 가을을 아름답게 수놓을 것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가야금병창에 이어서 대금과 통소가 어우러지고 아름다운 선율의 '해금산조'와 장구장단에 신명을 더하여 이야기가 있는 특별공연을 준비하였다. 판소리 수궁가, 흥보가, 심청가 중 흥미롭고 극적인 대목을 가야금과 소리로 흥겨우면서도 신선한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며 故박귀희 선생이 작곡한 내고향의 봄, 복숭아꽃, 꽃타령 등 신민요와 흥겨운 몽금포타령, 진도아리랑 등이 연곡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즐기는 흥겨운 공연이 될 것이다.

This is the musical performance which combines two types of instrument playing in one stage which is 'Heung' of pansori and 'Nonghyeon' of Gayageum(a Korean traditional zither like string instrument, with 12 strings).

The masterpiece of gayageumbyeongchang like Sugung-ga, Heungbo-ga, Simcheong-ga will mark the end of October. Especially, beautiful melody of 'Haegeum sanjo' will continue to be played with Daegeum and Tungso, a special stage for janggu with an exciting story.

Pansori 'Sugung-ga', 'Heungbo-ga', 'Simcheong-ga' will give an unforgettable and merriment to visitors.

'Spring from my hometown', 'the Flower of peach', 'Taryeong of flower', 'New folk song', 'Monggeumpo taryeong'. 'Jindo arirang' will be presented that are composed by the late master Park Gwhui.

The performance will be the best opportunity for the audience to enjoy various values of Korean traditional performance.

공연순서 PROGRAM

- 01 수궁가 중 화사자부터 관대장자까지 Sugungga: From Hwasaja to Gwandaejangja
- 02 단가 중 청성령지나갈제,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Danga: passing by Cheongseongryeong, Jaebinojeonggi of Heungboga
- 03 단가 중 명기명창, 심청가 중 황성가는 대목부터 방아타령까지 Danga: Myeonggimyongchang, From Hwangseongganeun Daemok to Bangataryeong, of Simcheongga
- 04 해금산조 Haegeum sanjo
- 05 민요모음곡 Minyomoeumgok



대표 위희경(국립국악원 민속연주단 단원)
연출 박현숙(국립국악원 민속연주단 단원)
출연 위희경, 박현숙, 박윤선, 조영제, 김충환, 이규용, 조윤진

평양예술단과 함께 하는 '우리 아리랑'

Play with Pyeongyang Art Troupe "Arirang"

2015. 10. 04.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평양예술단과 함께 하는 '우리 아리랑'의 주제로 북한의 고전 무용과 북한가요 등을 선보인다.

본 무대에서 궁중무용인 박편무, 평양검무는 우리 전통무용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날렵한 칼 동작과 절도 있는 안무가 돋보인다.

또한 현재 북한에서 대중악기로 널리 쓰이는 아코디언 연주로 세계명곡과 트롯트 메들리를 연주하고 북한창법으로 까투리타령과 트롯트 메들리를 선보인다.

오래전부터 함께 만들어온 우리의 역사문화지만 분단으로 살아온 세월만큼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한 민족 한 동포임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Pyeongyang Art Troupe holds the theme of "Arirang" to perform the traditional dance movement and songs of North Korea.

In the stage, 'Parkpyeonmu', 'Pyeongyanggeommu' are well known and popular as various traditional performance for people. Highlight of the performance will be a sword dance which will show the precise motion. Also, the North Korean way of playing Kkatari taryeong and medley of trot.

It will be a great chance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history, culture for both north and south. Through this performance, it will help to the narrow the wider gap between each part as a nation.

공연순서 PROGRAM

- 01 중창 반갑습니다 Jungchang-Nice to meet you
- 02 무용 고향의향기 Dance- the smell of hometown
- 03 중창 바다의노래 Jungchang-the song of sea
- 04 쌍무 남남북녀 Ssangmu-namnambuknyeo
- 05 무용 박편무 Muyong-Parkpyeonmu
- 06 독창 까투리타령, 아침의나라 Dokchang-Ggakturi taryeong, the Land of Morning
- 07 평양검무 칼춤 Pyeongyanggeommu-sword dance
- 08 아코디언독주 세계명곡, 트롯트 Solo of Accordion- World famous songs, trot
- 09 매직무용 삼천리의사계절 Magic Dance-the four season
- 10 중창 신고산타령, 달타령 Jungchang-Singosan taryeong, daltaryeong
- 11 노래와무용 아리랑 Music & performance-Arirang



대표 김신옥 (제5회 여성문화인상 문화예술특별상 수상)

총연출 김영희

출연 장영애, 김성실, 김미연, 윤보미나, 하승화, 임미령, 이현심, 한성희, 김민경, 김수영, 박금주, 김미경, 한예린, 류정희

심장의 울림을 들어라!

Listen to the heart beat!

2015. 10. 11.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타악그룹 런에서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전통 타악의 독창적이고 역동적인 퍼포먼스 무대를 준비하였다.

첫 무대는 웅장함과 역동적인 연주가 인상적인 대북소리로 하늘을 열고 땅을 울리며 우리 모두에게 파동을 울리는 '대북'을 선사한다. 이어서 현란한 몸놀림과 빠른 손의 움직임이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질주', 전통악기 대금과 태평소 가락에 맞춰 흥을 불러일으키는 '런 하모니', 대북의 소리와 부채의 화려함으로 무용과 타악을 가미한 '부채스툼', 파이프로 연결된 관을 통해 관객과 함께 리듬을 즐기게 하는 '시간여행&관객놀이', 마지막으로 자유자재로 악기를 움직이며 생동감과 재미를 선사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길 수 있는 'RUN'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Percussion troupe called "RUN" perform a contemporary music in creative and energetic performance for the audiences and visitors.

The show is kicked off with heavy sound of drum which is symbolized the opening of the heaven and rumble of the earth.

Later, music will be played very fast which attract and incite the audience to the rhythm. 'Run harmony' performed by the traditional instrument, Daegum and Tapyeongso; big drum sound and colorful folding fan performance will be presented under the title of 'Storm of Folding fan'; the connected tune with pipe help audience to enjoy the rhythm and travel of time.

For the finale is free style performance and will play 'Run' to end of the stage. It will invite the audience to the merriment and unforgettable memory.



공연순서 PROGRAM

- 01 대북 Big Drum
- 02 질주1,2 Running(Jilju)
- 03 런 하모니 Run Harmony
- 04 부채 스팀 Storm of Folding fan
- 05 시간 여행 & 관객 놀이 Time travel & play as a visitor
- 06 RUN



대표 김기봉

출연 김기봉, 문혜진, 유정화, 윤자원, 양승호, 임다경.

음향스텝 이지현

화광 아리랑 연희 2015 '태극취타대! 평화의 빛과 영원히 빛나리다.'

'Jeongryeuijanghaengryeol' by Taegeuk Chwitadae

2015. 10. 18.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옛날 임금이 쫓겨 행차를 할 때나, 군대의 행진 때 연주하던 군악(軍樂)의 하나로 취(吹)악기와 타(打)악기만으로 연주하는 대취타 공연을 선보인다. 우리문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대취타는 현재 국가행사의 시작을 알리며, 대규모 지역축제와 국제행사에 많이 쓰이고 있다. 무령지곡, 청천, 여명 등의 음악을 주로 사용하며, 현재는 정악과 민속악을 포괄하는 폭넓은 형태와 방식으로 연주되고 있다. 태극취타대는 민간단체로 대규모의 인원, 다양한 연주형태 등 규모면에서도 국내 유일한 연주단체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취타대 연주로 우리 전통문화의 멋스러움을 느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Daechwita' means 'great blowing and hitting' and refers to a genr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consisting of military music played by wind and percussion instruments, generally performed during royal processions and military march.

Today, Daechwita is presented before the beginning of important national events as well as at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celebrations in Korea.

In Daechwita performances, songs such as Muryeongjigok (music of military peace), Cheongcheon (clear sky) and Yeomyeong (a dwan) are frequently played; nowadays, by embracing pieces of Jeongak (Classical music) and Minsogak (folk music) broaden its musical ambit.

From the size to the repertoires, Taegeuk Chwitadae is the only band ensemble specializing in Daechwita in the country. The performance will be a rare opportunity for the audiences to enjoy the beauty and dignity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공연순서 PROGRAM

총체 대합주 화광 연희 2015 Grand ensemble Hwagwang Yeonhui 2015

01 태극취타대 길맞이 Taegeukchwitadae Gilmaji

02 대취타 합주 Daechwita ensemble

03 퓨전 타악 모듬북 합주 Fusion Percussion ensemble

04 화광 아리랑 연희 대합주 Hwagwang Arirang Yeonhui Grand ensemble



대표 변주대(태극 취타대 단장)

총무 이경진(태극 취타대 총무)

출연 이춘희, 이인상, 장영환, 장동국, 함창희, 전영환,
박호진, 장치후, 임종일, 김재현, 류완기, 김한웅,
박종일, 한 준, 이석재 외 70명

다함께 놀자 신명나는 한판 '유희노리'

Let's play together! Exhilarating Stage by 'Yuhuinori'

2015. 10. 25.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우리 전통연희의 한국적인 흥을 가지고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는 관객들과 소통하며 보여주는 우리 옛 놀이판을 재구성하여, 신명나는 창작연희를 선보인다.

유희노리는 전통예술 연희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창작연희작품으로 공연의 시작을 알리고, 관객들의 평안과 복을 비는 '유희나리', 원시인들의 축제를 표현한 구름사물놀이 '고인돌', 사물놀이를 새롭게 재해석한 '비온다', 기존의 진법을 탈피한 '원পুর이'등으로 관객과의 소통을 주제로 하여 현대인에게 맞게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마지막 공연은 '유희 - 당신에게 기쁨을 드립니다.'라는 작품으로 관객과 소통하며 하나가 되어 앉아서 보는 공연이 아닌 같이 즐기며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으로 꾸몄다.

Exhilarating and creative performances that draw upon Korea's folk performance arts will be presented wishing to transmit the excitement of traditional rhythms to the audience. A creative performing arts group Yuhuinori has recomposed and re-presented traditional performing arts named Yeonhui as a modern and contemporary art form. Yeonhui refers to a composite art in Korean performance tradition that Talchum (mask dance), Pungmul(percussion music) and Gut(ritual ceremony) are included. The firstly staged will be a Gueum (Oral sound) Samulnori (a Korean percussive art genre) piece entitled 'Dolmen' in which performers will make four different percussive sounds using their mouth instead of playing instruments. What follows is, 'It rains', a recomposed Samulnori piece. 'Wonpuri' (a type of healing ritual, literally means 'the interpreting and unravelling of a grudge') in which Pangut(literally stage gut, a kind of Korean folk music tradition) is recreated to fit the modern taste for the purpose of sympathizing with the audience. 'Yuhui-We bring you joy' as a finale will make a stage where the audience can interact with the performers beyond the boundaries between them.

공연순서 PROGRAM

- 01 유희나리 공연의 문을 여는 길놀이와 복을 비는 비나리 Yuhuinari- Start a stage with Gilnori and wish for great fortune
- 02 고인돌 구름사물놀이 Dolmen-GueumSamulnori
- 03 비온다 사물놀이의 재해석 It rains-reinterpret of Samulnori
- 04 입춤 한국의 전통무용 Ipchum- traditional dance performance of Korea
- 05 원পুর이 새로운 풍물판; 기존의 진법 탈피 Wonpuri - a new stage of Pungmulnori: get rid of original formation
- 06 U禧 당신에게 기쁨을 드립니다. Yuhui -We bring you joy



대표 임영호(연희컴퍼니유희 대표)
출연 윤여주, 박민우, 이동근,
오승원, 성유경, 김시화

